

한끼고구마, 홍콩시장에 첫 수출

전북농협 등, 고구마 수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와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은 공덕농협(조합장 문용수)·에버굿(대표 김한상)과 함께 한끼고구마를 홍콩시장에 첫 수출하는 선적식을 6일 공덕농협 농산물가공사업소에서 진행했다. 이번 수출은 작년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농협이 수출전략품목으로 발굴한 고구마에 대해 중점육성하는 과정에서 신규 거래처를 추가 발굴해 추진하게 됐다.

작년 공덕농협은 판매사업으로 114억원의 실적을 올렸으며 롯데마트를 주축으로 CU, 공영홈쇼핑, 온라인사업 등 판매처를 다각화해 조합원 실익증

진 합했으며 특히 고구마를 태국과 캐나다에 25톤(9만불), 가공식품인 한끼고구마는 미국과 태국에 3톤(4만불)을 수출했다.

전북농협은 고구마를 수출중점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진청 및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협업하여 CA 컨테이너 활성화 및 부패방지기술 수출전용 박스제작 등의 과제를 수행하여 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에 앞장서기로 하였다.

문용수 조합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 특별한 고구마로 세계 속에 우뚝서기 위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농협을 이끌어 나갈 것이며 농산물 2차 가공을 통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농협은 공덕농협·에버굿과 함께 한끼고구마를 홍콩시장에 첫 수출하는 선적식을 6일 공덕농협 농산물가공사업소에서 진행하였다.

해 조합원이 애써 키운 농산물의 가치를 끌어 올리겠다"고 말했다.

김영일 본부장은 "전북특별자치도와 협업체계를 돈독히 할 것이며 일선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더 칭찬받는 농협" 실천을 위해 농산물 수출을 전라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등은 6일, 설 명절을 맞아 전주삼성휴먼빌(아동보호시설)과 전주시장에인부모회를 방문해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건넸다.

설맞이 '사회 공헌활동' 실천

바이오진흥원, 농식품기업과 삼성휴먼빌 등에 온정의 손길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은 6일, 설 명절을 맞아 도내 농식품기업과 함께 삼성휴먼빌(아동보호시설)과 전주시장에인부모회를 방문해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건넸다.

이날 행사는 바이오진흥원과 사회공헌사업 협약 9개 기업이 협업을 통해 지역에 취약계층 및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고 응원하기 위해 임직원 성금과 도내 기업에서 생산된 470만원 상당의 식품 및 농산물을 전달하였다.

더불어 사회공헌사업 협약기업이자 진흥원 입주기업인 (주)밥다에서 전주삼성휴먼빌 45명의 어린이들에게 이날 점심으로 닭날개볶음

밥과 탕후루를 제공하여 무료 급식 나눔을 실천하였다.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이번 설 명절맞이 기부활동이 우리 이웃들에게 작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및 소외계층과의 상생을 위한 위문 방문과 기부행사 등 전북특별자치도 출연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바이오진흥원은 2023년부터 도내 9개 농식품기업(디자인농부, 밥다, 유스타팜, 지리산처럼 등)과 함께 사회공헌사업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함께하는 기부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김옥기 기자

전북환경청, 자연환경해설사

7일부터 19일까지 5명 모집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송호석)은 관내 습지보호지역 및 생태관광지역에서 근무할 자연환경해설사를 1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인원은 고창 운곡습지 보호지역 3명, 정읍 월영습지·솔타숲 생태관광지역 2명 등 총 5명으로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를 통해 3월중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주요 업무는 습지보호지역 등의 탐방객 대상 자연환경해설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다.

접수기간은 7일부터 19일 까지로 1차 서류심사를 위한 신청 및 접수는 온라인(워크넷)과 오프라인(우편 등) 모두 가능하다. 지원자격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기준 고창군·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퇴근이 가능한 자이다.

기타 근무조건, 채용기준, 채용일정,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전북지방환경청 누리집(www.me.go.kr/smg) 또는 워크넷(www.work.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전국환 자연환경과장은 "이번 자연환경해설사 채용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전해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장수군산림조합 이중지점 개점식 성황리 거행

상호금융사업 활성화와 장기·안정적 금융사업 성장기반 마련

상호금융사업 활성화와 장기·안정적 금융사업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제2의 도약을 위해 지난 1월 17일 영업지점(이중지점)을 개점한 장수군산림조합(조합장 한상대)이 지난 2일 오후 3시 전주시 덕진구 이중로 179번지에서 영업지점(이중지점) 개점식을 성황리에 거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산림조합중앙회 김용배 상호금융상무, 최홍식 장수군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용근 의원과 산

림조합중앙회 홍성조 전북지역본부장, 임필환 전북지역 산림조합 발전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전북지역 산림조합장, NH농협은행보현 전경애 총괄국장 및 장수지역 농협조합장, 장수군산림조합 임직원 등 주요 내빈 약 6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주요 행사로는 내빈소개, 환영사 및 축사 개점 업무보고, 테이프 및 떡 케팅식 기념촬영이 있었으며, 인근에서 내빈들의 상호금융 활성화 업무회의

후 행사를 마무리했다.

한상대 조합장은 환영사에서 "이중지점의 개점은 장수군산림조합원의 새로운 꿈과 희망을 이루기 위한 노력의 시작점입니다. 서로를 더욱 항기롭게 만들어 주는 따뜻한 마음을 담아 새로운 도전에 용기와 힘을 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성공사기는 그 순간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김용배 상호금융상무는 격려사에서 "금융환경이 열악한 중소도시 지역 조합의 몰모래일 수 있기를 바라며, 이중지점의 상호금융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중앙회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최홍식 장수군수는 축사에서 "장수군산림조합의 금융은 견실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좀 더 나은 금융사업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큰 결심으로 개점을 하게 되어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장수군에서도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장수=교관호 기자



한전 익산지사, 설 명절맞이 봉사활동

한국전력공사 익산지사(지사장 김건중)는 6일 익산 부송종합복지관 어머니 봉사단 등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 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풍요로운 설 명절 봉사활동을 펼쳤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진행된 이번 봉사활동에서 한전 익산지사 사회봉사단 8명은 부송종합복지관 봉사단과 함께 아침부터 명절 음식을

직접 조리하였다. 이후 조리한 음식과 함께 영양제 등의 물품을 포장한 후 직접 소외계층 150세대를 방문해 따뜻한 마음과 같이 전달했다.

김건중 지사장은 봉사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이번 활동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외계층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한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한전 익산지사는 6일 익산 부송종합복지관 등과 함께 소외계층에게 설 명절 봉사활동을 벌였다.

연구인력 채용, 연봉의 50% 지원

전북중기청, 공공연구기관 전문연구 인력 파견받을 경우도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태용)은 2024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을 통해 약 340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공계 학·석·박사 연구인력을 채용하거나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전문연구인력을 파견받을 경우 연봉의 5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연구인력혁신센터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데, 지역혁신기관, 대학, 협·단체, 국공립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난 1월 15일부터 전국 4개 센터를 모집 중이다.

한편 작년 10월, 5,303개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연구인력 실태조사를 한 결과, 중소기업이 보유한 연구개발인력은 기업당 평균 5.2명이지만 부족인원은 2.1명으로 28.8%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관련, 낮은 연

봉 수준(27.8%), 중소기업의 부정적 이미지(26.3%) 등이 주요 원인이며, 채용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연구인력의 경력개발을 위한 지원 등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부터 신진 연구인력의 인건비 기준이 되는 기준연봉을, 학사 1년차의 경우 2,7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500만원 상향조정한다.

이와 함께 국가첨단전략산업 등 첨단기술분야 기업을 우대하고, R&D 과제의 차별성 검토 실시, 신규과제 대상 현장실사 전수심사 등을 통해 사업 운영을 내실화하고, 중소기업-연구인력 간 매칭 웹서비스를 지원(4월)하여 연구인력 확보의 편의성을 제고한다.

올해 신규 지원 규모는 채용지원 약 310개사, 파견지원 약 30개사 등 340개사 내이다.

/김옥기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